

여수산단 생산·매출 회복세 뚜렷

1분기 지역경제 동향

중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생산과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수산단의 1분기 생산 실적은 15조424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3조7360억원에 비해 12.3% 늘었다. 전 분기 12조2222억원에 비해서도 26.2% 증가했다.

수출 실적도 58억95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51억4300만 달러에 비해 14.6% 증가했다. 전 분기 44억7700만 달러에 비해서는 31.7% 증가하면서 정유·석유화학 업종의 회복세를 이끌었다.

여수시의 1분기 조세 징수 실적은 101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세의 징수 실적은 등락면허세(도세)의 감소(504억원)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생산 15조·수출 59억달러...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
지방세 징수·여수공항 이용객 증가...관광객 2.8% 감소

10.1% 감소했다. 반면 시세는 49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은 1분기 어획량이 1만322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5% 증가했다. 위판액은 39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 줄었다.

철도 이용객 수는 승차 15만1515명, 하차 15만369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승차 29.4%, 하차 27.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에 비해서도 승·하차 각각 8.4, 8.1% 감소했다.

서울과 제주로 향하는 항공 관련인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21만161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5.7% 증가했으나 전 분기에 비해서는 8.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여수~서울 15만34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0% 증가했고, 여수~제주는 5만81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다.

1분기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은 169만여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감소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여수산단의 생산과 매출 모두 10% 이상 상승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및 대출 규모도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착한가격 업소' 지정

외식업 30곳 등 40곳...지역화폐 제공 등 인센티브 확대

광양시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40곳을 '2021년 광양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착한가격 업소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시는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위해 지난달 14~25일 신청을 받은 뒤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가격, 위생·청결·품질서비스 등을 심사해 3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기존 지정업소 49곳 가운데 재심사를 거쳐 폐업, 휴업, 가격 인상 등으로 부적합한 12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광양시 착한가격 업소는 한식, 일식, 중식 등 외식업 30곳, 아미음업과 세탁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10곳 등 40곳이

다. 시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올해 처음 5만원권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인종 표찰 제작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집, 장바구니 중 일부를 선택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현 인센티브의 확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광양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

이화영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시민과 착한가격 업소 모두에게 이로운 지원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치매안심마을 확대

덕연동 등 2곳 늘려 6곳 운영...선별검사 등 실시

순천시가 치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살아가도록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한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덕연동 2동과 조곡동 10동 등 2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총 6개 마을을 치매 친화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치매안심센터는 신규로 지정된 치매안심마을 만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저하 주민은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8개 병원과 연계해 개별 맞춤 검진서비스를 진행한다.

또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 맞춤 프로그램, 치매안심관리사 방문 서비스,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 파트너 양성사업,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벽화조성,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전기·가스점검, 노후 차단기 교체 등을 실시한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들이 거주지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치매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걱정없이 살 수 있



순천시치매안심센터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있다. <순천시 제공>

도록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 등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곡성군, 소상공인 점포 '스타가게'로 육성

15일까지 5곳 공모

곡성군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스타가게로 발굴 육성한다.

곡성군은 오는 15일까지 스타가게를 5개소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 조건은 5월31일 기준 곡성군에서 6개월 이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가게 중 기술, 맛, 창의적 아이디어가 탁월하거나 역사가 깊은 가게, 또는 관광연계 효과가 뛰어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스타가게로 선정되면 스타가게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는다.

환경 개선, 마케팅, 시제품 개발, BI 개발 등

업주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점포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우편, 이메일을 통해 곡성군 도시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1차 선별하고 분야별 전문가 평가와 주민 평가를 합산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좋은 상품을 가진 가게나 특색이 있는 가게들을 통해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군 스타가게가 전국의 스타가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대 기자 pj@kwangju.co.kr

여주시청 소풍봉사단

경로당 벽화 그리기 활동

여주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풍봉사단이 지역민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여주시청 나눔누리 사랑봉사단 소속 소풍봉사단이 소리면 대곡 여자경로당 앞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날 봉사에는 소풍봉사단(단장 여복래)과 여수미술관(관장 서봉희), 지역 중고교 미술학도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에 나선 봉사단은 오전 9시부터 경로당 앞 넓은 벽면(23m)에 밝고 화사한 다채로운 그림으로 색을 입히며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소통과 재능기부로 지역민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풍봉사단은 지난 1월 여주시 사회복지과 여복래 자원봉사팀장을 중심으로 12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결성됐다.

여복래 소풍봉사단장은 "문을 열면 늘 고품격이 핀 담배를 보던 어르신들이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 꽃·나무·새 등이 그려진 오색빛깔 벽화에 어린아이처럼 즐거워 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을 선

물하기 위해 소풍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풍봉사단은 지난 4월에도 무선 고인돌 공원에서 잡초 제거와 꽃 심기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보성읍포해수녹차센터에 특산물 매장 개장

보성읍포해수녹차센터에 특산물 판매장이 개장했다. <사진>

특산물 판매장은 옛 뷰티 테라피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했으며, 보성군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연중무휴 운영될 예정이다.

판매 품목은 차류, 쌀, 꿀, 도자기 등 보성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공예품 등이며 총 30개 업체가 참여한다.

또 오픈 이벤트로 6월 한 달간 5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읍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시범 운영으로 소비자 반응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역의 특성과 테마를 살린 판매장을 운영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특산물 판매장 일부를 창작 미술 전시



공간으로 조성에 문화와 쇼핑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영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